

#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小考)

김 성 봉\*

## 목 차

- I. 서 론
- II.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III.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 IV. 논의 :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

## I. 서 론

문화예술교육이란 용어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대중들에게 그다지 익숙한 것이 아니었다.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불과 3년 전이라 할 수 있다. 즉, 2003년 7월 그 동안의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지역사회 문화기반시설과 학교 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한 이후부터이다.

2004년 11월에는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이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 법은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법안을 놓고 다양한 논쟁과 보완을 거쳐 2005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2005년에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함께 기획되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 가운데 대표적인 사업은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이다. 이 사업에 2005년에는 제주를 포함해 33개 시·군·구가 선정되었고, 2006년 현재에는 문화부 지원 30개 지역, 교육부 지원 30개 지역 등 전국 총 60개 지역이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이 이른바 'ARTreach 프로젝트'로서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전임강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 ARTreach 프로젝트’인 경우, 작년에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고, 올해에는 사업 폭을 한층 넓혀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제주북초등학교, 신산초등학교, 예래초등학교 등 대상 학교를 10여개로 확대하는 한편 프로그램도 전통체험에서부터 음악,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 철학이나 지향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활성화 정책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박만용, 2003 ; 윤여옥, 2003 ; 조병진, 1999 ; 황연주, 정연주, 2004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a)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부각시키고 있으며, 혹자들은 공교육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심효정, 이용훈, 2003: 154)고 까지 한다.

이 글에서는 학벌지향 담론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홀대받아 온 문화와 예술의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고 II장에서는 문헌연구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의미와 교육적 의미를 통해 고찰하고, III장에서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학교와 지역 문화예술시설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려고 한다. 마지막 IV장 논의 부분에서는 앞의 고찰과 방안제시와 관련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하려고 한다.

## II.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 1.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의미

문화라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동·식물의 재배와 양육을 의미하던 것에서 인간의 교양이나 정신세계의 교양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고, 오늘날에는 의미나 가치, 정체성, 반성 혹은 성찰, 사회적 의사소통, 다양성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과 연계되고 있다. 유네스코(UNESCO)는 문화를 어떤 사회나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독특한 영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성들의 총체적인 복합체이며, 예술과 문자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 믿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부단히 변화, 확장되어 왔다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 맥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예술은 전통적으로 창의성, 감수성, 상상력, 전문적 기예와 같은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유용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술의 창의성, 감수성, 상상력과 같은 개념들은 오늘날 지식기반사회에서 사회적, 국가적 경쟁

력 제고와 높은 상관을 갖는다는 점에서 예술은 사회적 의미를 갖기에 충분하다.

문화와 예술의 이러한 사회적 의미는 문화와 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인은 물론 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정책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창의한국』(문화관광부, 2004a)과 『예술의 힘』(문화관광부, 2004b)에서 정책적 측면에서 문화와 예술이 강조되는 맥락을 사회발전의 동력, 시민성의 강화, 사회적 수요에의 대응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의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논리를 보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며, 오늘날의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라는 주장들은 공공정책의 영역에서 문화와 예술을 강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창의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의 가치가 개인의 인격적 완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사회가 그토록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경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의 총체적 생산능력의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며 나아가 경제와 사회발전을 이끄는 성장 엔진이기 때문이다”(문화관광부, 2004a: 27)라고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가 창의성을 중시하는 이유 또한 그들이 문화적인 나라여서라기보다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문화관광부, 2004b)하고 있다.

두 번째의 시민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문화와 예술이 강조되는 이유를 보면(문화관광부, 2004a), 정책적 차원에서 문화와 예술은 무엇보다 시민의 자기역량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적 상황들은 그 동안 국가 주도적 발전과 식민지배의 경험, 내재적 역량에 의하지 않은 발전과정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 상황들은 더 이상 국가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시민사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의 사회적 수요에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와 예술이 필요한 이유를 보면(문화관광부, 2004b), 문화와 예술은 개개인의 반성과 성찰, 상호간의 의사소통 등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잠재된 창의력과 감수성을 북돋워 줌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유대를 강화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사회의 문제적 상황들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이 개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간의 이해와 의사소통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거나, 주체적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문화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보는 인식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의 양성을 통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나가려는 정책적 필요”(p. 53)를 보여준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건강하고 성숙된 개인을 육성하는 것은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강조는 개개인이 향유해야 할 삶의 질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과도 관련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의성과 상상력, 감수성, 문제해결 능력 등의 용어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문화와 예술은 국민들의 주요 여가활동 영역이라는 이유로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주 5일제 근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는 보다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문화와 예술영역은 중요한 여가 정책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된다고 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이 갖는 이러한 사회적 의미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그 개념에 대한 이해나 그것이 지시하는 영역 혹은 대상에 대한 이해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문화나 예술이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은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문화와 예술의 특정 내용이나 측면이 추가되거나 강조되는 것 또한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문화와 예술의 교육적 의미

기영준(2005)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은 첫째, 학생들의 학습과 창의력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둘째,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에 참여하는 예술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규범적 주장만으로는 문화와 예술의 교육적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와 예술이 왜 필요한지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a)의 논의가 도움이 된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문화와 예술이 갖는 독특한 특성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이 특성들이 갖는 교육적 속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우선, 문화와 예술이 갖는 독특한 특성(pp. 23-27)을 요약하면, 첫째, 기획/실행, 창작/향유 과정의 통합이다. 문화 활동과 예술 활동은 다른 노동행위와는 달리 자신의 생산물(창작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소비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의해 소비(향유)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일반인들에 의한 문화, 예술 활동은 대부분 자신의 만족이나 표현을 위해 이루어지며 개인은 이러한 창작과정에 직접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창작품에 대하여 스스로 소비자로 또한 향유자로 존재하게 된다. 이처럼 문화, 예술 활동은 기획 및 실행과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과정에 있어서도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들로 하여금 주체적 개인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행위의 전 과정 및 그 생산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둘째, 자기 관리 역량의 강화이다. 개인이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정 성향, 기술, 태도, 능력 등을 향상시키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일 것이다. 흔히 '여가선용'이라고 하는 표현은 소비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다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보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이나 특정 성향, 역량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기 관리적인 특징을 보인다.

셋째, 성찰적 역량의 증대이다. 문화, 예술 활동을 단순한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규정할 경우, 관찰력이나 반성, 성찰적 능력 등은 문화, 예술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 예술 활동에 있어서 대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은 활동의 성공적 수행에 매우 필수적이며, 나아가 반성적인 사고와 성찰적인 태도를 배양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넷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이다. 문화, 예술 활동은 자신의 사고와 활동, 태도에 대해 집중적인 성찰적 자세를 요구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활동이나 생각 또한 자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동일한 대상일지라도 다른 시각에서 다르게 보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개개인의 제한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 지평의 확대는 자기와 다른 사고, 자기와 다른 태도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

다섯째, 원활한 의사소통 환경 조성이다.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상에 대한 자신의 느낌, 인식, 이해, 인상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그러한 방식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이처럼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개발되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 이해와 이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양한 방식에서의 자기표현과 이를 통한 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 의사소통의 중요한 한 양식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한국관광문화정책연구원(2004)은 이러한 문화와 예술 활동이 갖는 독특한 특성은 본질적으로 교육적인 속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논의하고 있는데(pp. 27-8)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외현적으로 표현되거나 내재적으로 작동하는 과정 및 그 결과물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되는 문화는, 그것이 가지는 관계적, 소통적, 성찰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교육적 효과와 밀접히 관련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작력에 기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예술 혹은 예술 창작 활동 또한 예술 그 자체를 위한 강조에서 예술이 유발하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으로 오늘날 그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이 흔히 창의적 사고력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문제해결 능력 등과 같은 용어와 함께 사용되는 것은 이처럼 문화, 예술과 교육의 상호 관련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이와 같이 문화와 예술 영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교육적 속성을 보다 강화하고 이를 분명한 지향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보다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곧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이 가져오는 사물에 대한 감성적 인식이나 대상에 대한

상상적 사고의 확대, 이러한 인식과 사고에 기반한 창의적 활동의 강화, 문화적 활동이 유도하는 소통적 상호관계, 반성적 사고 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라는 것이다.

### Ⅲ.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그동안 우리의 지역 문화예술시설은 학교와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갖지 못한 채, 단순 관람 위주로 제한적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교와 지역 문화예술시설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상호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와 지역 문화예술시설과의 연계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지역의 교육적,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학교도서관의 문화적 공간으로의 활용,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문화·교육 공간으로서의 영화관 활용,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미술관 활용이라는 네 가지 연계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 1. 학교도서관의 문화적 공간으로의 활용

우리 교육이 선진 외국에 비해 지식중심의 획일적 교육이라는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는 물론 문화적 감수성과 분명 거리가 있다. 이런 교육으로는 우리 사회가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데 중요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조직화' 능력을 제대로 길러낼 수 없다.

학교도서관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가치를 재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교육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도서관을 문화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나,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들로서는 다양한 문화예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영화 감상실과 음악 감상실, 각종 문화적 모임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문화자유공간, 적당한 게임 등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공간 등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단편적인 정보와 지식을 암기하는 장소 이상의 의미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감동적인 문화와 예술과 만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만남은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정서를 달래면서 보다 조화로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만남의 학교도서관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학생들을 진정한 문화 향유자인 동시에 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문화 창조자의 싹을 키우는 장으로써, 나아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가는 자기조직화의 기반으로 기능할 것

이다.

## 2.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학교도서관을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다면,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연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설에 따라 사정은 다르겠지만,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정보 및 지식 습득을 위한 각종 자료는 물론,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어학 및 문화예술 강좌, 취미오락강좌, 동화 구연, 청소년을 위한 교양강좌, 강연회, 전시회, 감상회, 연주회, 예술 공연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문화, 예술적 측면들을 학교와 연계시킨다면 공공도서관의 위상제고는 물론 이용자 수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문화예술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1993년에 인천 효성서초등학교와 지역 공공도서관인 북구도서관이 결연을 맺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 결연 사업은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모두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 공공도서관이 협력해 독서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실천의지를 기르며 참여도를 높여 독서생활화에 실효를 거두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제도적인 뒷받침의 부족과 교사와 사서들의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지속되지 못했다(김지현, 2000).

이 사례가 주는 교훈에 덧붙여, 학교도서관과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시설간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교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공히 이러한 연계가 가능한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그 개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3. 문화·교육공간으로서의 영화관 활용

영화관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 이상의 문화공간으로 나아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교육공간이 될 수 있다. 영화관은 스크린을 겸비한 무대가 설치되어 있어 무대 위에서 강연, 학예회, 음악회, 연극과 같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다.

특히 영화관은 공간적으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학교에서는 얻기 힘든 시청각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영화관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다. 이 대형 스크린을 강연에 활용해 멀리 있는 학생도 강연회 내용을 영화 보듯 즐기게 할 수 있다. 이는 청각에 주로 의존하는 전통적인 강연과는 다른 양상의 강연이 될 것이다. 예컨대, 고정 영상 상영 시간이나 관객이 많은 시간대를 피해 몇몇 지역사회학교들을 위한 강연을 기획하는

것이다. 영화관은 많은 좌석이 있어 한꺼번에 많은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다. 여러 학교의 남녀 학생들을 동시에 모아놓고 이를 테면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대형 스크린으로 보여주면서 강연하는 것이다.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의 정서에 유익한 영화를 추가적으로 상영하여 남녀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강연이 될 것이다.

문화·교육 공간으로서 영화관을 활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전략으로 ‘학생전용영화관’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영화관 간의 협력을 통해 특정한 날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영화를 스크린쿼터제로 상영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니면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복합영화상영관의 한 관을 임대하여 ‘고전영화 및 다큐멘터리 영화 전용관’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 전용관에서 학생들은 평소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면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다. 고전영화는 청소년들에게 과거에 대한 이해는 물론 기성세대 문화와 접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학생들이 평소 알고 싶어 했지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사실들을 대형 스크린으로 보여줌으로서 그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나아가 학생들의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을 환기시키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세대와 성인 세대 간의 대화 부족 혹은 단절의 문제가 사회문제의 하나로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이 두 세대 간의 대화의 문을 여는 단초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다.

#### 4. 평생교육 장으로서의 미술관 활용

과거에는 정규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일생을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 이제는 인간 수명의 연장과 함께 배움의 시간도 길어지고 지식의 변화 속도도 과거 어느 때보다 빨라지면서 잠시도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사회에 적응하기 쉽지 않은 이른바 ‘평생학습사회’(life-long learning society)가 도래하였다.

다른 문화예술시설도 그렇지만 특히 미술관은 미술 작품 감상을 통해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미술 작품에는 미술 그 자체의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사회, 정치 등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어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영화관, 미술관 외에도,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 여성복지센터,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등의 지역시설들과 학교를 연계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IV. 논의 :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의미와 교육적 의미를 통해 살펴보았고, 필자 나름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정리하면, 문화와 예술은 오늘날 사회국가적 경쟁력 제고와 관련되므로 사회적 의미를 갖기에 충분하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발전의 동력, 시민성의 강화, 사회적 수요에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은 여타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활동과는 구분되는 문화예술 활동 그 자체의 특성인 창작과 향유 과정의 통합, 자기 관리 역량의 강화, 성찰적 역량의 증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원활할 의사소통 환경 조성 등과 같은 관계적, 소통적, 성찰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창의적 사고력,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문제해결 능력, 성찰적 사고 등을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확보해 학생들의 자기조직화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공공도서관의 위상 제고는 물론 학생들의 문화예술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영화관은 그 구조적 특징을 잘 살린다면 문화·교육공간으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미술관은 미술 작품을 통해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접하게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나 활성화 방안이 현행 학교 시스템에서 얼마나 작동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지금 우리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이 그다지 호의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들여켜 보면, 예술이 학교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필수로 인정된 적은 별로 없으며, 오히려 예술을 교육의 중심주체와는 거리가 먼 사치스런 주제나 교육적 장식물로 생각해 왔다(조병진, 1999: 209). 미술교과는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꾸준히 줄어들었고, 7차 교육과정에서는 주당 1시간에 불과하다. 미술교과가 직접적으로는 수학능력시험에서 전면 배제된 상황에서 홀대받기 딱 좋다. 박만용(2004)의 표현대로 미술교과는 현재와 같은 학교의 물리적 환경과 입시라는 '공공의 적'(p. 242)이 버티고 있는 한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인 교사는 예술교육이나 문화교육과 관련한 전문적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 재직 중에도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a: 106).

최근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히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이는 것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 영역 간의 상호연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예술적, 교육적 상황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우리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학교의 이러한 물리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예능교육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은 기존의 학교예술교육 입장에서 문화교육이나 예술교육에 대한 정부 주도의 정책적 관심을 제대로 받아 본 역사적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기관으로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나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영역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공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형태 중에서 가장 그 범위가 넓고, 효과 또한 가장 큰 영역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의 공교육을 조망해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의 원인들은 우리 사회의 다원화되지 못한 획일적 가치 기준과 성찰의 부재에 있다. 인간을 평가할 때 특정한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인간성, 도덕성, 소박성과 같은 것이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명품 지향성이 강한 우리 사회는 부와 경제적 성공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가치체계에 의해 압도되고 있다. 부와 경제적 성공을 위해 전국의 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좋은 '학벌'을 따기 위해 대학 입시라는 현실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학교 문화예술 시범 사업인 'ARTreach 프로젝트'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 향상이라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학벌지향 담론의 현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의 목적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 목적이란, 지역 내 문화시설 및 전문 문화예술단체와 각급 학교 간 연계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교 외부의 문화예술 전문 인력, 시설,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청소년들의 감수성을 계발하고 창의성을 도모하며, 기능별 교육의 한계를 탈피하여 향유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며,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문화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바람직한 협력 모델을 개발, 확산하는 것이다(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b). 그리고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주로 교과통합을 통한 수업 및 특별활동, 재량활동, 특기적성 교육 등과 연계된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문화기반시설 등과 연계된 학교 밖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며 학교와 학교 밖 문화자원의 연계를 위한 조사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문화연대, 2004).

이러한 목적과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상급 학교 진학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 학벌 중심 사회라는 현실에서 그들의 대학 진학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 만큼 참여도는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들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문화예술의 진수나 전통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적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여옥(2003: 144)은,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학교 예술 교육에 대해 문제 삼고 있지만, 정작 예술 교육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들며, 예술을 하는 것과 예술을 교육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술을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예술을 교육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술 활동과 교육 활동은 엄연히 다른 활동으로서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음미해 볼만한 대목이다.

물론 이 학습적 측면의 고려가 지나쳐 문화와 예술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문화나 예술의 본질은 억압적 사회구조와 목적에 의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도구적 합리성에 대해 저항적인 속성에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심에는 억압적 사회구조에 도구화된 인간을 자율적 주체로 만드는 작업이 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역시 이러한 작업에서 예외일 수 없다.

결국 필자가 강조하는 학습적 측면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단순한 정보와 지식의 습득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사회변화를 지향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습 지향은 학벌지향 담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우리의 사회적 현실에서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현실에 의해 상당 부분 규정되기 때문이다.

혹자는 현재 진행 중인 'ARTreach 프로젝트'가 소외받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주어지는 국가적 시혜로 해석하기도 하나,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프로그램 운영 주체들은 프로그램 속에 문화예술교육의 페даго지컬 혜택(pedagogical benefit)을 넘어 시혜로 다가 온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적 탐구를 담아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정적, 자선적 시혜는 사회모순을 잠시 가리는 효과가 있지만 문제해결의 근본책이 될 수 없으며, 이런 접근은 자칫 체제 긍정적인 개량주의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부정의한 체제가 빚어내는 문제들을 임시변통의 치료를 통해 약화시킴으로써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은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체제 속에서 견디며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체제유지의 시녀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ARTreach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이 만나는 프로그램은 단순한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특정 프로그램(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은 물론 그것을 진행하는 문화예술가 모두에게 살아오면서 갖게 된 체험들을 자신의 존재의미와 연관 지어 해석하고 이를 통해 자기반성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과정, 한마디로 '실존적 체험과 그 반성'(Pinar, 1975)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은 우리 현실의 부정적인 내적 기제를 드러내는 학습, 우리 사회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습, 지금의 문제투성이의 교육 기제에 근본적인 영향을 가하는 학습, 한마디로 '사회구조의 변혁으로의 전진'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까?

## 참고문헌

- 기영준(2005).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워크숍. 제주문화예술재단.
- 김지현(2000).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방안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제38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문화관광부(2004a).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 문화관광부.
- (2004b). 『예술의 힘』. 문화관광부.
- 문화연대(2004). "지역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추진경과와 과제" 『문화교육』. 교육포커스, 27호.
- 박만용(2003). 7차교육과정의 서자 문화예술교육~! "상공의 바린 자식이 아버지를 부르고 싶 나이다", 『교육비평』 가을 제13호, 241-249.
- 심효정, 이용훈(2003).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공교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4호, 153-177.
- 윤여옥(2003).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재검토. 교육원리연구, 8(1), 143-163.
- 조병진(1999).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연극 : 그 위치와 교육과정 계획. 연극교육연구, Vol. 4, No.-, 207-224.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a).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2004b). 『문화예술교육진흥법(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황연주, 정연희(2004).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분석과 전망. 미술교육논총, 제18권 3호, 1-28.
- Pinar, W. (1975). Currere: Toward Reconceptualization in Curriculum Theorizing. In W. Pinar Ed., The Reconceptualists. California: McCuchan Publishing Corporation.